



[산업] 현대로템 수소 충전인프라 진출 매출 3500억 목표 06



Life

[라이프] 신세계계의 마케팅 신세계 장르별 VIP 혜택 11



개발서 판로·특허까지... 스타트업 100社 패키지 지원

서울시, 스타트업 3대 육성전략

스타트업 100개사 성장 촉진
기술인력 1만명 인건비 지원
스타트업 펀드 1150억 조성

서울시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해 제품화와 판로개척,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한다. 또 유망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개발 인력 1만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성장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1150억원 규모로 조성, 기업당 30억원 이상 투자해 조기도산을 막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3대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3대 육성전략은 ▲유망 스타트업 100개사에 1억원의 '성장 촉진 종합 패키지' 지원(100억원) ▲스타트업 기술인력 1만명 인건비 지원(500억원) ▲새



박원순 시장이 10일 오전 시청에서 '스타트업 3대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로운 펀드 조성으로 기회선점에 투자(1150억+α)다. 총 1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박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통해 신규 기술 창업이 5만개를 돌파했고 시가 보육하는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액은 작년에만 1882억원으로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유니

콘 기업 10개 중 9개, 예비유니콘 기업 27개 가운데 20개사가 서울에 소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국내 스타트업은 매출감소, 투자차질, 해외사업 난항의 3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렵게 성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리는 집중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스타트업의 기술력 확보를 지원, 고용시장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성장 촉진 종합 패키지를 통해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유명 업체 100곳에 각 1억원을 투입한다. 투자 유치 성과가 있거나 기술 성숙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100개사 중 30곳은 바이오·의료 분야 기업으로 채운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연구개발, 판로 개척, 추가적 기술 획득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은 2000여개 기업,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3~7명에게 5개월간 1명당 월 5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7월 중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전담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바이오·의료, 비대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야 시리즈A 이상인 스타트업의 인건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성장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11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서울산업진흥원(SBA) 기금 등을 활용해 시가 115억원(SBA 투자기금 15억원·혁신창업펀드 1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채운다. 8월부터 투자 유치 규모 2억~10억원에 해당하는 '시리즈A' 기업에 먼저 약 150억원을 수혈한다. 12월에는 '시리즈B' (투자 유치 규모 10억원 이상) 단계 기업에 투자한다. 최대 32곳에 업체당 30억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엔젤투자협회, 에쓰오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등과 '코로나19 대응 기회선점'을 통한 차세대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박 시장은 "모두가 스타트업 지원의 필요성을 통감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기회다. 남들이 주저할 때 우리는 확실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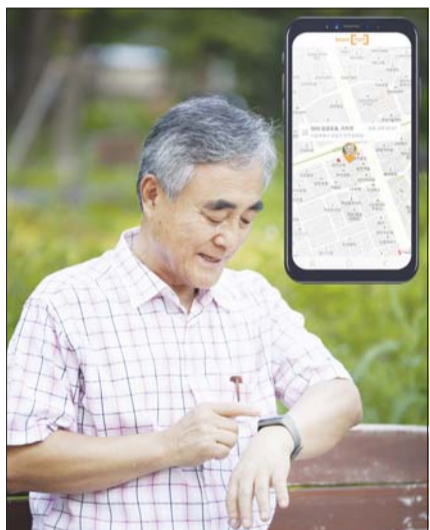
서울시, 배회감지기로 치매노인 안전 지킨다

SKT와 '스마트 지킴이' 1000대 보급
어르신 위치·주요동선 확인할 수 있어

서울시와 SK텔레콤이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실종을 예방하는 '스마트 지킴이' 1000여대를 무상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지킴이는 손목시계 형태의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다. 보호자는 전용 앱인 'Smart 지킴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현재 위치와 주요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 시 여러 명의 가족과 치매노인의 위치를 공유할 수도 있다. 보호자가 사전에 설정해둔 권역(안심존)을 이탈해 배회할 경우 앱 알람이 울린다.

배회감지기 이용자의 위치정보는 사용자 설정에 따라 5~10분에 한 번 로라(LoRa)망을 통해 갱신되며, SK텔레콤의 전용서버인 '스마트 안전 플랫폼'을 통해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서울시는 단말기 대여료와 통신료를



스마트 지킴이 이용 모습. /서울시

전액 부담한다. SK텔레콤은 SK통신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이와 관련한 서면협약을 11일 체결할 예정이다.

스마트 지킴이는 한번 충전하면 평균 최대 7~10일(위치수집 5분주기)까지 사

용할 수 있다. 실시간 위치파악 정확도가 높으며 생활방수기능(IP67등급의 방진방수)도 탑재돼 단말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설거지, 샤워 등을 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날짜와 시간을 보여주는LED 화면과 터치기능도 있다.

스마트 지킴이 이용 희망자는 관할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치매 어르신 2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지킴이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용자의 95.7%가 단말기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앞으로 서울시는 사용자들의 소리를 꾸준히 듣고 이를 반영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스마트복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국내여행도 안가요"... 여행횟수 70% 급감

코로나19로 여행횟수 6회→1.8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 국민들의 연간 여행횟수가 6회에서 1.8회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국내여행 영향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직후인 5월 7~17일 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앱, SNS 채널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을 통해 진행했

으며, 1만9529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올해 계획했던 연간 여행횟수는 평균 6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 평균 1.8회로 70% 줄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월 23일~5월 5일) 동안 국내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던 응답자 중 84.9%가 실제로 여행을 취소했다고 답했다. 특히 15세 미만 자녀 동반 여행자의 여행계획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6.5회에서 이후 1.9회로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여행을 취소한 비율도 87.5%로 전체 평균을 웃돌아 코로나 상황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 7·9급 등 284명 채용

행정직 157명·기술직 114명 등

서울시는 2020년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7급 221명, 9급 50명, 연구사 13명 등 총 284명을 선발한다고 10일 공고했다.

공개경쟁을 통해 205명, 경력경쟁을 통해 79명을 뽑는다. 분야별로는 행정직 157명, 기술직 114명, 연구직 13명이다. 응시원서는 8월 3~7일 서울

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필기시험일은 다른 시·도와 같은 10월 17일 토요일이다. 필기 합격자 발표는 11월 17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30일이다.

서울시는 통상 6월과 10월 등 1년에 두 차례 채용시험을 진행하며, 결원이 생기면 연말에 공고를 내고 이듬해 초 정도에 별도로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올해 제1회 시험은 예정일이 3월 21일

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4월 중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또 미뤄져 이달 13일 제2회 시험과 병합해 필기를 치른다.

제1·2회 병합 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은 2935명이며 총 4만9818명이 응시해 경쟁률은 17대1이다.

기타 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인재개발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편마암지대동굴서 선사시대 유적 확인

'고양동 호랑이굴' 발굴조사서 발견

경기 고양시는 재단법인 화서문화재연구원과 '고양동 호랑이굴' 발굴조사에서 선사시대 인류의 흔적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사시대 유물이 편마암 지대 동굴에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알려진 선사시대 동굴유적은 제천 점말동굴, 정선 매둔동굴 등 모두 석회암 지대에 있다. 선사시대 유물이 확인된 고양동 호랑이굴은 자연동굴로, 대자산 정상(해발 203m)에서 북동쪽 해발 고도 168m 중턱에 있다.

고양시는 동굴의 입지여건이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선사시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고양동 호랑이굴 조사후 전경. /고양시

해 지난해 11월부터 시굴 조사와 지난 달 동굴 입구 15㎡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지표에서 70~130cm는 역사시대 유물층으로 자기와 도자기 편 등 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소량 출토됐다. 그 아래에 있는 1.3~2.5m에서 구석기시대의 편석기와 함께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됐다. /양성기 기자 ask9990@